

*조주가 남전에 물었다. "도가 무엇입니까." 남전이 말했다. "평상심이 도이다." "거기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가려고 더듬으면 곧 어그러져." "더듬지 않고 어떻게 도를 알 수 있습니까." "도는 알고 모르고에 속해 있지 않아. 안다는 것은 망녕이고 모르는 것은 혼미이지. 진정 더듬지 않은 도에 이르려면, 그곳은 태허처럼 특 특여 있어. 어찌 시비를 붙일 수 있겠나." 이 말에 조주는 단박 깨달았다.

한형조 무문관 탐방

25

남전의 평상심

*나 해가 말한다. 남전은 조주의 물음을 받고, 다만 기와가 무너지고 얼음이 풀리듯 해 버려서 적절할 설명을 할 수 없었다. 조주 가 이에 깨달았다고 해도 다시금 삼십년을 참구해야 할 것이다.

*송하여 가로되, "봄에는 꽃, 가을에는 달,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겨울에는 눈. 마음에 걸여놓은 일 없다면, 내건 하루하루가 기쁨의 날이네." 平常是道。南泉因趙州問，如何是道。泉云，平常心是道。州云，還可趣向否。泉云，擬向別處。州云，不擬，爭知是道。泉云，道不屬知，不屬不知。知是妄解，不知是無記。若道不屬知，猶如太虛，廓然同歸。豈可強是非也。州於言下頓悟。無門曰，南泉被趙州發問，直得瓦解冰消，分疎不下。趙



그림·이진형

대답에 남전은 자리를 고쳐 앉았다. 서상(瑞像)이란 상서로운 상징이란 뜻이나 법당에 안치한 여래나 나한 등을 가리킨다. 그렇지만 서상이 어찌 나무 돌로 깎은 조형물을 가리키겠는가. 조주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영혼, 선의 진수를 구현하고 있는 스승을 만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이

제 여기 누워있는 남전에 운명의 기대를 걸었음을 내비쳤다. 말할 것도 없이 누워 있는 여래란 지금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남전을 가리킨다.

남전은 잠시 얼떨떨했던 것이 틀림없다. 과거와 현재를 거리낌없이 드러내며 대응하는 한 기묘한 정신을 발견한 것이다. 남전은 다시 한번 확인한다. "네게 스승이 있느냐." 조주는 있다고 대답한다. 누구냐고 묻자 조주는 남전에겐 큰 절을 올리며, "거울 날씨가 흡습니다. 스님께서는 존재를 편히 가지십시오."라고 말했다. 이로써 조주는 남전의 제자가 되었다.

지금의 이야기는 그의 수련이 익어 폭지를 떠난 날의 기연(機緣)일 것이다. 조주는 가슴 속에 담아둔 한 마디를 던졌다. 남전은 조주의 맥살을 잡거나, 몸통을 집거나, 단편을 피우지 않고 온전하게 타이른다. "진리는 평상심에 있다. 피곤하면

제 여기 누워있는 남전에 운명의 기대를 걸었음을 내비쳤다. 말할 것도 없이 누워 있는 여래란 지금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남전을 가리킨다.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중생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교리가 설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세상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고와 낙의 근원은 다른 곳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과 악을 발생시키는 것도 마음이고 복과 죄를 창조하는 것도 마음이며 현재와 내세를 잇는 것도 마음이다. 그러다 보니 불교는 자연히 중생의 마음이란 과연 무엇이라는 의문하에 그 본질을 규명하려고 수행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특히 부처님이 열반하신 구백년 즈음 뒤에 나타난 무착(無著)보살은

팔식(八識) ①

<해심밀경(解深密經)>에 나타난 심의식(心意識)설에 영향을 받아 마음의 구조와 본질에 대한 탐구를 하였는데 여기에 기초해서 일어난 불교의 학문을 유식학이라고 한다. 유식학에 의하면 중생들이 지니고 있는 마음은 매우 깊고도 오묘해서 부처님같은 해안이 아니고서는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유식학은 대략 세가지로써 중생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첫째는 마음을 망명되고 여러색은 번뇌에 측면을 두고 설명해 나간 것이다. 여기서는 중생의 마음을 여덟 종류로 분류하여 선과 악 그리고 그에 대한 과보와 윤회를 말한다. 둘째는 마음을 중생의 깨끗하고 참된

法數로 배우는 불교

<35>



김대열 작 '이렇고'

유식설에서 밝힌 8가지 마음 구조 사랑·미움 말나식 사랑심서 일어나

진여성에 측면을 두고 설명해 나간 것이다. 중생의 마음은 선과 악의 깨끗하지 못한 상대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움과 밝으며 자비로운 진여성 즉 부처님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 셋째는 위에서 말한 번뇌롭고 어두운 마음을 정화하여 밝고 자비로운 진여성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 것인가

를 설명해 나간 것이다. 중생이 생사로부터 벗어나 안락한 대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와 남을 동시에 이익되게 할 수 있는 수도와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여덟 종류의 마음 구조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중생은 눈으로 물질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들으며 코로 냄새를 맡고 혀

로 맛을 보며 몸으로는 촉감을 느끼고 마음으로는 대상을 파악한다. 그러면 그곳에는 반드시 식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이 감각기관인 근(根)과 감각대상인 경(境)이 부딪혀 일어난 마음 중 안식·이식·비식·설식·신식을 전오식(前五識)이라 하고 이 전오식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의식을 6식(六識)이라고 한다. 전오식이 우리의 오관을 통하여 객관계의 대상을 인식하는 각각 독립된 정신영역이라든 육식은 앞의 오식을 종합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판단하게 하는 정신영역이다. 전오식에 의해 순간적으로 포착된 대상계에 대한 인식은 육식에 의해 더욱 명료해지고 분명해 지는 것이다.

육식을 유식학에서 요법경계식이라고 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법경계식인 육식에는 무엇이 따라 붙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다음번 해아리고 탐·냄·성냄·어리석음을 지으면서 온갖 번뇌를 야기시키는 마음인 것이다.

이것을 제칠 말나식(末那識)이라고 하는데 말나는 마나스(manas)의 음역으로 사랑식이라고 번역하며 항상 그곳에 붙는 것은 모두 이 말나식인 사랑심에 의해서이다.

이제 열 <유마선원장>

"봄꽃 가을달 마음에 걸지 말라"

먹고 웃고 늙는 일상속에 존재비밀 있다

春縱隨語去，更參三十年始得。 頌曰，春有百花秋有月，夏有涼風冬有雪，若無別事，心頭，便是人間好時節。

조주는 벌써 네 번째 등장하고 있다. 처음 "개에게도 불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불통스레 "없다"고 했고, 진리를 묻는 학인의 절박한 질문에 "그릇이나 찻게"라고 탄성을 부렸으며, 편히 사람을 시험한답시고 "이리 오너라" 하다가 되레 주먹감자를 먹는 조주의 모습을 살펴 보았다.

지금 살펴볼 이야기는 그의 수련기, 남전을 모시고 가시킴불을 해치던 고뇌와 방황의 시절이다. 순서대로라면 이것이 바로 앞에 나와 할 텐데 해개는 그런 문제에 고의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사실 선에 시간은 없다. 시간이 없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역사도 없다. 오직 직접적 대면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안은 그 하나하나가 독자적 가치를 가진다.

조주는 어려서 출가했지만 정식으로 계를 받지 않고 떠돌다가 어느날 남전의 처소에 이르렀다. 남전은 비스듬히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조주를 보고선, "어디서 오느냐"고 물었다. "서상원(瑞像院)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럼 서상은 보았느냐." "서상은 보지 못했고, 다만 누워 계신 여래는 보았습니다." 이

주지않고, 배고프면 식당을 기웃거리며, 슬픔에 눈물 짓고 기쁨에 웃음짓는 너의 그 일상적 반응 거기에 존재의 비밀이 있다." 조주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나는 지금 진리와 더불어 하나라는 자신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평상심이 진리라면 대체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가. 조주의 의혹에 스승은 찾거나 도망하려고 애쓰지 말고 충고한다. 의심을 내거나 의혹을 보이는 순간 진리의 화살은 서역 저편으로 날아가버릴 것이다. 여기서 擬는 "의심한다" "잘 몰라서 생각을 더듬는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게 대체 무엇일까 하고 호기심과 의혹에 찬 눈으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연상하면 좋겠다.

실제는 나와 더불어 있다. 그것이 전부이다. 생각은 나를 이 생생한 실체로부터 분리시킨다. 나와 실제와의 간극에서 시간이 태어나고, 또한 고통이 잇따른다. 선의 모든 방편은 이렇게 위험한 인간의 무시이래의 사고습관을 치유하고, 나와 실체와 합체시키려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일치된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선은 참 심거운 것이다. 아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난다.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달이 뜬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불교와 수학

28

현실성

김용운

최근 KBS 프로그램 '수학을 왜 싫어하는가?' (1997년9월25일 방영)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고 심지어 수학책만 보아도 알

고등수학 현실 외면하지 않듯 禪도 생활에서 참모습 찾아야

레르기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고등학생의 수학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오늘날 각급 학교의 수학 교육의 전반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다. 초등학교 6년, 중·고 6년 합계 12년간이나 배운 수학을 것처럼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수학의 본질과는 관계가 별로 없는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학은 대학 입시를 위한 척도에 불과하며 대학에 입학하면 별로 쓸모가 없고, 또 시험을 위한 수학이며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33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서울대생들도 수년이 지나면 지금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도 제대로 풀 수 없게 된다. 이 현실은 입시위주의 수학이 대학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고 학부 대학에서조차 별 쓸모가 없는 수학이라면 사회 생활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어떤 지식 분야라도 써먹지 않게되면 지식은 잊혀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수학은 이런 경향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최주현

려 번뇌는 곧 보리(菩提)임을 긍정하고 인간 스스로가 지니는 현실(번뇌)도 존재하기에 나의 번뇌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에 무조건 번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자신을 똑바로 보고 스스로의 참모습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 '파자소암(婆子燒庵)'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파자'란 노파(老嫗)라는 뜻이다. 이 노파는 장차 크게 될 것이라고 믿어지는 수도승이 있어서 오랫동안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 수도승은 열심히 참선을 하고 수십 년간 꾸준히 수도를 했다. 노파는 이제 상당히 수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그 심경의 깊

이를 알아보기 위해 미인 자기말을 그 수도승에게 보냈다. 그 여인은 스님을 보듬어 안고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스님은 끔찍도 않고 '바위 위에 선 고목이 3년 지난 것처럼 전혀 따뜻한 기미가 없는 심경'이라고 답했다. 이 말은 전해들은 노파는 그 스님을 당장 내쫓고 수행하고 있던 암자까지 태워 버렸다.

아무리 크게 깨우쳤다 하더라도 인간의 삶, 인간의 감각이 완전 없어졌다면 그것은 이미 인간이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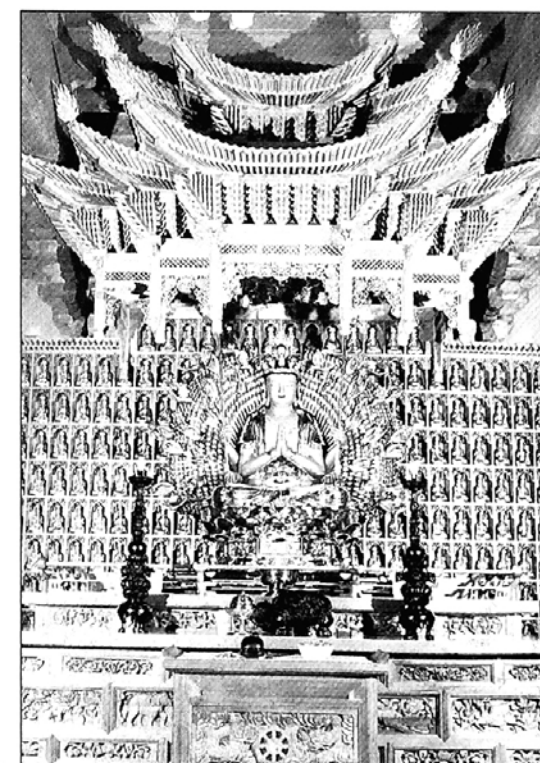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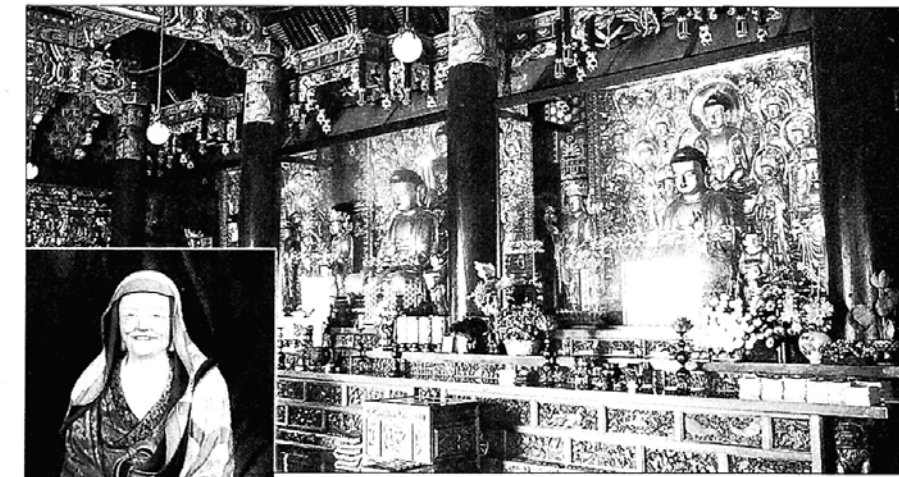
니다.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 욕망, 인간으로서의 번뇌를 갖고 있기에 인간이다. 그것이 모두 없어지면 이미 인간이 아니게 되는가! 진공 속에 빠져 혼자 있기만 한다면 여러 중생을 제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그 노파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나는 이 선(禪)에 관한 이야기에서 큰 위안을 받는다. 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고 지적 자극을 받아야 의미가 있다. 단순히 수학을 위한 수학, 특히 시험만을 위한 수학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은 이 노파의 이야기가 시사하는 것처럼 지적 흥미, 곧 인간성이 없기 때문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공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달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 ▷ 서울사무실 : 서울 종로구 건지동 81번지 2층 TEL. (02)738-8447
- ▷ 대전사무실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동 807번지 TEL. (042)483-8466
- ▷ 공방연구소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25-1 TEL. (0416)857-5825

대표 이진형 합장